



NEWS LETTER

2021년 2월 22일 Vol. 399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채석래 교수 임명

동국대학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가 임명됐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2월 9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이사회를 통해 다음 달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성민 의료원장의 후임으로 채석래 교수를 임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채석래 교수는 제5대, 7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채 교수는 대외적으로 대한진단혈액학회장, 대한수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2022년도 제36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주요 수상내역으로 ‘2020년 제39차 대한수혈학회 적십자 공로상’ 등 수혈의학 분야의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혈액사업 및 대한수혈 학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성우스님)은 2월 18일 동국대학교 바이오 캠퍼스 상영바이오관 8층에서 신임 의료원장 및 일산병원장, 의료원 기획처 경영관리실장에 대해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 김민호 경영관리실장이 임용됐다.
채석래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제5대, 7대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권범선 교수는 의료원 기획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병원을 잘 이끌어준 조성민 의료원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소임을 맡은 채석래 의료원장과 권범선 일산병원장을 중심으로 친절한 의료서비스와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더욱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3주기 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 평가를 받았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는 2019년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후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조사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조사위원 3명이 직접 방문했으며 △인증 필수기준 △최우선관리기준 △환자안전지표 △퇴원기록 완결도 부문 등 전체 243개 조사항목과 지난 3주기 의료기관 인증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그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중간현장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해원 병원장은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이번 중간현장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환자안전과 질 관리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방전공의 수료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2월 19일 4층 명성세미나실에서 ‘2020년 한방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수련을 마친 전공의는 전문수련의 5명, 일반수련의 4명 등 총 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수료한 한방내과 송주연 전공의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 동안 도움 주신 진료과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성우 한방병원장은 “전공의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존경받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